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7호 【루계 제24355호】 주체102(2013)년 11월 3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후공격전의 기상이 나래치고있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또다시 돌아보시였다.

최룡해동지, 렴철성동지, 황병서동지, 김동화동지, 홍영칠동지, 마원춘동지, 조남진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륙군상장 박승원동지와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식령스키장건설을 발기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산세험한 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시여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드릴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은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력사적인 호소문과 현지말씀에서 제시된 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마식령속도》창조의 숨결을 끊임없이 높여가는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애국충정의 마음에 떠받들려 마식령전역에서 모든 대상건설이 끝나게 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특색있게 꾸려지고있는 호텔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호텔을 산골맛이 나게,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잘 꾸리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천연화강석과 통나무를 배합하여 호텔외벽을 처리한것도 좋고 마감층 베란다도 스키를 형상하여 건설하니 정말 멋있다고, 호텔계단부도 새맛이 나게 형성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복도와 침실 등 호텔의 모든 요소요소가 산골냄새가 푹푹 난다고, 마치 자연속에 들어온것만 같은 기분이라고 기뻐하시였다.

마식령스키장의 호텔은 대상의 특성과 용도에 맞게 설계하고 시공할데 대한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흠잡을데없는 건축물, 표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초, 중급주로휴식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휴식장을 잘 건설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체력을 단련할뿐아니라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수 있게 스키장의 모든 휴식터들을 손색이 없이 꾸려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된 여러 스키주로도 기쁨속에 보아주시면서 건설자들이 공법의 요구대로 주로를 잘 닦았으며 푸른 잔디까지 정성껏 심어놓으니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10월 15일에 대화봉에 첫눈이 내리였으며 11월 중순부터 눈이 본격적으로 내린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완공을 기다린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이 구상하고 발기한 마식령스키장건설이 이제는 완공을 눈앞에 두었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군인건설자들의 공로이며 그들의 영웅적위훈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스키장건설을 군대에 맡기기를 정말 잘하였다고, 인민군대가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진행하였다고, 《마식령속도》라는 새로운 시대어가 인민군대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이런 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긍지이고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가 올해에만도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비롯하여 인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제 마식령스키장까지 완공되면 마식령지구에서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다, 현대적인 스키장에서 웃고 떠들 인민들과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혁명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게 된 건설자들이 격정에 겨워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에게 오래오래 손저어주시며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체 건설자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그들이 세운 위훈은 부강조국건설력사에 길이 남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을 세상에 둘도 없는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중국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신 소식을 10월 30일과 31일 중국에서 보도하였다.

《인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의 사격경기대회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전체 참가자들이 올리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매일이라도 보고싶은 미더운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여 대단히 기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군의 모든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건군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격경기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군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여있어도 사격을 잘하지 못하면 맡겨진 전투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총을 잘 쏴야 군인들을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키울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전군에 명사수, 명포수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이번 사격경기대회를 조직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기에 참가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은 평시에 련마한 사격술을 보여주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목표를 정확히 명중하여 높은 점수를 맞을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경기대회에서는 시상이 있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사격경기대회를 통하여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자신들부터가 명사수가 되여야 모든 군인들을 명사수, 명포수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되였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사격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중국보도사, 홍콩 봉황위성TV방송과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신화망, 환구망, 보도망, 동북망도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07호 주체102(2013)년 10월 23일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세계적인 기념관, 민족의 대국보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공헌한 군인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청년영예상,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성대히 경축한 조국땅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혁명적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시며 창조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며 당의 부름이라면 그 어떤 기적도 단숨에 창조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애국충정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명령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선군조선의 창조본때로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한 세계적인 기념관, 민족의 대국보로 훌륭히 일떠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군인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김정일훈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낫)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청년영예상, 명예칭호와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 | | | | | |
|---|---|---|---|---|---|
| 김정일훈장 | 1명 |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 | 3명 | 국기훈장 제2급 | 45명 |
| 서재국 | | 공훈건설자칭호 | 1명 | 수도건설기념훈장 | 959명 |
| 로력영웅칭호 | 5명 | 공훈설계가칭호 | 1명 | 국기훈장 제3급 | 84명 |
| 강정호 한영찬 리봉학 허운성 김선래 | | 공훈예술가칭호 | 10명 | 군공메달 | 60명 |
| 김일성청년영예상 | 5명 | 국기훈장 제1급 | 29명 | 공로메달 | 112명 |
| 렴광명 장충혁 리청철 김현철 장성일 | | 로력훈장 | 10명 | 수도건설기념메달 | 1 428명 |
| | | | | 계 | 2 753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인민경제 여러 부문, 단위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10월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 10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한 기세로 힘차게 전진

###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

각지 수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이 총공격전을 드세게 벌려 뜻깊은 10월 전력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허천강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발전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10월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부전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높은 효률운전을 진행하면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매일 전력생산과제를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장자강발전소, 위원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력구조물들과 발전설비의 보수정비를 실속있게 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면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하였다.

대동강발전소와 남강발전소, 태천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고 전력생산에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들을 세우면서 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희천발전소, 삼수발전소와 안변청년발전소, 례성강발전소와 금야강군민발전소의 로동계급도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높이 세운 10월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 룡성기계련합기업소에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0월계획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계획수행기간 이곳 로동계급은 나라의 철강재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소결로 대차생산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

선군주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높은 생산목표를 세우고 합리적인 조형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중요대상설비소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2주물직장, 2주강직장, 단조직장의 로동계급도 맡겨진 소재생산에서 날마다 위훈을 창조하였다.

1기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소결로대차가공전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대형공작기계직장의 로동계급도 마식령군인건설자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대차부분품가공과 조립에서 높은 속도를 보장하였다.

2기계, 4기계, 치절, 선군압축기직장들에서는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보낼 기계부속품가공을 결속하기 위해 공격속도를 더욱 높이였다.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굴지의 건재생산기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뜻깊은 10월에 생산설비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높이 세운 세멘트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올해전투목표수행정형을 면밀히 따져보고 미진된 과제들을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작전을 혁명적으로 짜고들면서 세멘트생산과 설비정비보수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치기 위한 대책들을 실속있게 세워나갔다.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의 로동자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유압뽐프소재를 비롯한 주물품소재생산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유압기구직장에서는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인데 맞게 기대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원동기와 분배기 등 각종 유압기구부속품들을 성과적으로 생산하였다.

대형조기직장과 제관직장에서는 교대생산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생산자들의 드높은 생산열의가 자랑찬 열매로 맺게 하였다.

주강직장과 고무직장에서도 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면서 맛있고 영양가높은 당과류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였다.

### 재령광산에서

재령광산에서 10월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획수행기간 광산의 일군들은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방향을 옳게 정하고 박토처리와 배수계통의 만가동보장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사별공정의 생산능력을 높여나갔다. 이 과정에 전망이 좋은 심부채굴장이 마련되고 사별공정의 처리능력이 높아져 높은 실적이 기록되였다.

승리광구의 광부들이 혁신의 앞장에 섰다. 그들은 착정기들의 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 앞선 작업방법을 받아들이고 굴착기들과 대형자동차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여 뒤공정에 더 많은 쇠돌을 보내주었다.

금산광구의 광부들은 작업반별 사회주의증산경쟁을 벌리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그들은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치렬한 생산전투를 벌려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보장단위의 로동자들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속품보장과 수리를 책임적으로 하면서 두몫, 세몫의 일감을 맡아 철광석생산을 늘이는데 이바지하였다.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광산의 당, 행정일군들은 중요생산현장들에 선전선동수단들을 전개하고 기동적인 생산조직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서 혁신적성과가 이룩되도록 하였다. 결과 광산에서는 불리한 생산조건을 이겨내고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그루지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뜨빌리씨

그루지야 대통령
게오르기 마르그웰라슈빌리각하

나는 당신이 그루지야 대통령으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그루지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2(2013)년 10월 28일 평 양

# 청춘거리 체육촌개건보수공사 적극 추진

청춘거리 체육촌개건보수공사가 마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불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전반적인 건설대상들의 내외부마감공사가 기본적으로 끝나고 운영준비도 동시에 힘있게 추진되여 훌륭히 개건보수되고있는 청춘거리 체육촌이 자기의 웅장한 새 면모를 확연히 드러내고있다.

하부망공사가 이미 끝난데 이어 타일붙이기와 건구설치를 비롯한 마감공사에서도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모든 경기관들에 전자현시판들이 새롭게 설치된것을 비롯하여 설비들에 대한 조립도 힘있게 진행되고있다.

분수터와 넓은 면적에 새 품종의 잔디를 심기 위한 공사에서도 련일 놀라운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롱구경기관, 배구경기관, 체육인식당을 비롯한 많은 대상물들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으며 전반적인 공사는 95%계선을 넘어섰다.

개건보수공사지휘부에서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공사를 빨리 끝낼수 있는 합리적인 안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이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감작업을 손색없이 수행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대담하고 능숙하게 진행하고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마감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데 맞게 여러 건설대상들에 대한 마감자재와 건구들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전투현장에서 일군들이 벌리는 화선식정치사업이 건설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어 개건보수공사장은 불도가니마냥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롱구경기관개건보수공사에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남포시려단의 건설자들은 공사장에 도착한 첫날부터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앞장에서 달려온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마지막공사과제들을 빠른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서산축구경기장개건보수를 맡은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과 함경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경기장바깥바닥돌깔기를 비롯한 공사과제들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등탑공사를 비롯한 나머지공사도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수영경기관개건보수공사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사장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중의 하나인 수영경기관개건보수공사를 맡은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작업조건과 맡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로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면서 나머지 공사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력기경기관, 중경기관, 바드민톤경기관개건보수공사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도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날마다 불같은 공격전을 벌려 타일붙이기와 건구설치를 비롯한 마감공사와 함께 주변정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성요업공장 당조직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그날로부터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시찰의 길을 걸으시면서 인민군대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고 선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습니다.》**

대성요업공장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우선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집행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와 함께 초급일군들이 선군정치의 독창성, 정당성, 생활력에 대한 자료들을 깊이 학습하고 대중속으로 들어가 독보와 해설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얼마전 생산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당원들과 종업원들에게 어버이장군님께서 펼치신 선군혁명령도의 위대성을 구체적인 자료들과 결부하여 실감있게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선군정치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번영의 찬란한 래일을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불멸의 업적을 통한 그의 정치사업은 종업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종업원들은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끝없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충정을 다해 받들어갈 불타는 일념을 안고 맡겨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 버섯공장건설 빠른 속도로 진척 함경북도에서

함경북도에서 능력이 큰 버섯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며 여러가지 방법으로 버섯도 많이 재배함으로써 인민들의 식생활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어 짧은 기간에 방대한 기본생산건물의 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낸데 이어 궁륭식버섯재배장벽체쌓기와 층막치기, 합숙골조공사, 내외부미장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고있다.

버섯공장건설이 완공되면 흰곤봉버섯과 느타리버섯, 참나무버섯을 비롯한 여러가지 버섯을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버섯을 더 많이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도소재지와 가까운 부령군의 명당자리에 능력이 큰 버섯공장을 일떠세울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건설지휘부일군들과 건설에 동원된 근로자들은 2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본생산건물과 2층합숙골조공사를 완성하고 보조건물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과업들을 솔선 맡아해제끼면서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세멘트와 모래, 강재를 비롯한 자재와 물자들을 건설장에 지체없이 보장해주어 건설속도를 계속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버섯공장건설에서 제일 어려운 건설대상인 기본생산건물을 맡은 부령수력발전건설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면서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사업소의 건설자들은 질좋은 혼합물을 신속히 보장하여 골조공사를 다그치면서 벽체외부미장을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부령합금철공장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이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가닿게 할 열의를 안고 궁륭식버섯재배장과 보조건물건설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2층짜리 덩지큰 합숙건설을 맡은 부령군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근로자들도 건설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합숙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벽체미장전투에 들어간 이들은 합숙을 질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도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 도의 수많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년대학생들이 버섯공장건설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고있다.

특파기자 리은남

# 올해농사를 앞당겨 결속하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린다

## 낟알털기속도와 질을 높이는데서 틀어쥔 고리

### 은률군 일군들의 사업에서

오늘 우리 당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없이 제때에 걷어들여 나라의 쌀독에 채워넣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영농전투의 중심을 낟알털기속도와 질을 높이는데 두고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든 은률군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주목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를 잘 걷어들이고 낟알털기를 깐지게 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말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알의 낟알도 귀중히 여기고 허실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군일군들은 가을철영농전투의 모든 공정들에서 속도와 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데 힘을 넣었다. 벼단묶기를 잘하도록 한 사실을 보자.

올해 군에서는 벼가을을 지난해보다 5일간 앞당겨 시작하여 20여일동안에 결속할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하였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에 맞게 낟알의 허실을 없애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따라세워야 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은혜협동농장으로 향하던 군일군은 벼단묶기가 한창인 어느 한 포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농장일군들이 청년들앞에서 벼단을 묶는것이였다. 가까이 다가서는 그를 본 한 농장일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벼 한이삭에서 한알씩만 떨어진다고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수만 t의 벼가 허실된다고 하시였다고 하면서 올해 농사일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벼단묶는 방법을 가르쳐주고있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는 벼는 베여서 포전에 눕혀놓는데 땅에 닿았던 이삭은 젖었으므로 겉에 드러나게 묶어 세워야 한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해준다는것이였다.

그 말을 들은 군일군은 생각되는 점이 많았다. 한것은 올해 농사일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이런 문제까지 강조해주도록 하지 못했기때문이였다.

이 농장 일군들의 주인다운 일본새에서 교훈을 찾은 군일군은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농사일을 시작한 청년들이 벼단묶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도록 대책을 세우게 하였다. 특히 벼단을 세울 때 바람방향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군안의 농장들에서 벼단묶기를 잘하기 위한 된바람이 불었다. 금천협동농장 일군들은 올해에 농사일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벼단의 크기와 묶는 방법만 가르쳐주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왜 오후 3~4시부터 1~2일전에 베여놓은 벼를 단을 묶어 세워야 하는가 하는 문제까지 가르쳐주었다.

군일군들이 또 한가지 잘한것은 모든 농장들에서 동가리치기를 잘하여 낟알의 허실을 없애도록 한것이다.

동가리를 어떤 방법으로 치며 그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것은 낟알의 허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이로부터 군일군들은 송관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였다.

이 농장의 농장원들은 먼저 벼단들을 서로 의지하게 세워놓아 이삭들이 땅에 닿지 않게 한 다음 동가리를 치였다. 또한 동가리를 칠 때 이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벼단을 쌓아 낮과 밤의 온도차이로 낟알의 천알당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이 없도록 하였다. 특히 동가리치기를 제때에 할뿐만아니라 습지대포전의 벼는 철저히 논두렁에 세워놓았다.

이들의 주인다운 일본새가 다른 농장들에 전해지면서부터 동가리치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힘있게 벌어졌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무겁게 자각한 장련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한무지의 동가리도 바람방향까지 보아가며 크기가 알맞춤하게 치였다.

군일군들은 벼알이 잘 떨어지는 다수확품종의 논벼는 포전에서 털도록 작전하여 실적을 올리면서도 낟알의 허실을 없애도록 하였다.

올해 군안의 농장들에서는 여러가지 다수확품종의 논벼를 받아들이였다. 그런데 어느 한 품종은 정보당 수확고가 류달리 높은데 벼알이 잘 떨어지는것이 약점이였다.

이 문제를 중시한 군일군들은 군안의 농장들에서 이동식탈곡기를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들이 잘한것은 이동식탈곡기가 고장나면 제때에 수리할수 있게 예비부속품준비도 미리해놓도록 한것이다.

군일군들이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든것만큼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낟알의 허실을 없애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분발해나섰다.

결과 군에서는 낟알털기계획을 90%이상 수행하면서도 그 질을 보장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군의 경험은 일군들이 낟알털기의 속도와 함께 질보장문제를 틀어쥐고 조직사업을 전투적으로 해나갈 때 올해농사를 떳떳하게 총화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본사기자 김 창 길

## 은을 내는 이동식탈곡기

### 은파군에서

은파군에서 생산한 130여대의 이동식탈곡기가 매 작업반들에 배치되여 은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을과 운반, 탈곡을 깐지게 하여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곡식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투쟁에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군책임일군들은 낟알털기를 적기에 와닥닥 끝내기 위한 해당 부문 일군협의회를 여러차례 진행하고 모든 일군들이 협동농장들의 작업반들에 내려가 농장원들을 적극 도와주도록 떠밀어주었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일군들은 낟알허실을 막기 위한 방도를 이동식탈곡기들의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다같이 내밀도록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갔다.

군에서는 이미 이동식탈곡기생산과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였다. 일군들은 참가자들에게 먹임장치, 정선장치 등 탈곡기의 능력과 낟알털기의 질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군농기계작업소와의 긴밀한 련계밑에 협동농장들에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이동식탈곡기생산을 다그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낟알털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한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하였다. 하여 군안의 모든 작업반들에는 낟알털기가 시작되기 전에 1대이상의 이동식탈곡기들이 갖추어지게 되였다.

지금 모든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제힘으로 생산한 이동식탈곡기들을 리용하여 매일 낟알털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강안협동농장에서 낟알털기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으로 빛내일 열의안고 떨쳐나선 일군들은 이동식탈곡기생산정형을 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합평회를 자주 조직하면서 탈곡기마다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기술검사를 책임적으로 하였다.

이곳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20여대의 이동식탈곡기생산을 끝낸 기세드높이 낟알털기에서 군적인 앞자리를 차지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류정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할 자신만만한 투지를 안고 낟알털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불리한 조건을 뚫고나가면서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벌려 말 많은 낟알을 털어내고있다.

읍협동농장에서는 낟알털기의 질보장에 큰 힘을 넣고 력량을 집중하여 실적을 올리고있다. 작업반들에서는 로력을 총동원하여 낟알털기가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고있다.

초구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모든 작업반들에 종전보다 성능이 더 좋은 이동식탈곡기들을 새로 만들어놓고 농장적인 낟알털기가 일정계획대로 진척되게 하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설비관리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낟알털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 오르고있다.

일군들은 낟알털기성과가 오르는데 맞게 보관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고있다.

본사기자 정 주 원

## 그날계획은 그날로

### 피현군 하단협동농장 제1작업반의 농장원들

낟알털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들끓는 전투장에 나간 작업반 초급일군들은 한해농사를 결속하는데서 낟알털기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해설해주면서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그들은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으면서도 그날계획은 그날로 끝낼수 있도록 낟알털기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우선 낟알털기교대 및 작업조직을 농장원들의 나이와 육체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였다. 또한 낟알털기시작부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장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작업반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교대당 낟알털기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그날계획은 그날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결과 작업반은 농장적으로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작업반원들의 애국열의에 의하여 낟알털기실적은 날마다 오르고있다.

성과가 오를수록 작업반초급일군들은 모든 농장원들이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도록 이끌고있다.

로농통신원 최 원 화

## 박막을 효과있게 리용

### 순천시 증산협동농장에서

순천시 증산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가 마음에 든다.

벼단을 실어들이면서 비닐박막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낟알의 허실을 없애기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한알의 낟알도 허실하지 않고 거두어들이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농장일군들은 낟알의 허실을 없애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방도를 찾기 위해 토론을 거듭하였다.

여러가지 방도들이 나왔다. 그중에서 운반수단들에 깔아놓은 멍석이나 가마니우에 비닐박막을 한벌 펴고 벼단을 실어나르자는 안이 보다 혁신적이였다.

농장에서는 즉시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벼단을 운반할 때 비닐박막을 깔고 하니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쉬운 방법으로 벼알을 쓸어모을수 있었다. 뜨락또르와 달구지바닥에 멍석이나 가마니만 깔고 벼단을 운반할 때에는 벼알들이 그 짬에 배기므로 그것을 걷어내여 털군 하였다.

결과 비닐박막을 깔고 벼단을 운반할 때보다 벼알을 털어내는데 품이 많이 들었다.

비닐박막을 깔고 벼단을 운반하면서부터 방비로 쓸어담으니 구태여 멍석이나 가마니를 걷어내지 않아도 되였다.

이 사업에서는 제2작업반이 모범을 보이였다. 이곳 농장원들은 벼단을 싣고부리울 때 뜨락또르와 달구지바닥에 깐 멍석우에 비닐박막을 구석구석에까지 펴고 한알의 벼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면서 벼단을 운반하였다.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이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주인다운 일본새로 하여 낟알털기실적이 오르고있다.

김 강 철

## 작은 문제도 크게 보고

### 함주군 송정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벼단을 빨리 거두어들이고 탈곡을 질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함주군 송정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지난해보다 벼가을을 빨리 끝낸 기세로 벼단운반과 낟알털기를 다그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을 때였다.

이제 중요한것은 벼단운반속도를 부쩍 높이는것이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속에 들어가 운반속도를 높이는 문제를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그 과정에 제기된 의견들을 놓고 일군들이 주의를 돌린 문제점들이 있었다.

포전도로보수를 일관하게 앞세울데 대한 문제가 그중의 하나였다.

벼가을이 끝난 후 벼단을 운반해야 할 때에 비가 내리였다.

비가 내린 상태에서 뜨락또르가 오가면 포전도로가 패이게 된다. 그것을 제때에 보수하지 못하면 운행도중 뜨락또르가 들추면서 실은 벼단들이 떨어질수 있다. 운반속도가 떠지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때문에 일군들은 비생산단위로력으로 포전도로들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다.

일군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과 작업반초급일군들속에서 제기된 뜨락또르련결차가 더 있으면 운반속도를 보다 높일수 있다는 의견도 중시하였다.

예비로 가지고있던 련결차를 효과있게 리용하면 운반속도보장에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일군들은 필요한 방도를 찾아 실천하였다. 즉 포전과 탈곡장사이거리가 멀거나 운반속도가 떨어지는 작업반들에 기동적으로 그것들을 배치하여 리용하게 하였다.

운반수단들에 벼단쌓기를 잘하게 한 사실을 보자.

어느날 탈곡장마당으로 계속 들어서는 뜨락또르와 달구지들에서 벼단을 부리우던 일군들은 한가지 문제에 주의를 돌리였다.

뜨락또르련결차와 달구지들의 규격은 같은데 운반량에서는 차이가 있는것이였다. 따져보니 벼단을 실을 때 쌓기를 잘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벼단쌓기에도 요령이 있는데 경험이 부족한 일부 농장원들이 그 방법을 잘 모르고있었던것이다. 때문에 일군들은 작업반들에서 벼단을 잘 쌓는 방법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고 로력조직을 보다 세밀히 하도록 초급일군들을 분발시켰다. 그에 따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진 초급일군들은 이 사업에 품을 들이였다.

일군들은 부림소먹이를 제때에 보장하는 문제도 놓치지 않았다.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과정에 벼단운반을 맡은 농장원들속에서 실적을 부쩍 올리려는 열의가 높아졌다. 그에 맞게 관리공들이 부림소먹이시간을 잘 정한 작업반들에서는 아침에 달구지들을 리용하여 많은 벼단을 더 운반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일군들은 부림소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달구지바퀴축에 기름칠을 자주 해주는것 역시 작은 문제로 여기지 않고 세심한 주의를 돌려 필요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웠다.

본사기자 김 성 철

## 최첨단돌파전의 앞장에 선 3대혁명소조원들

## 사랑과 량심으로 걷는 창조의 길

### 양덕군식료공장에서

양덕군식료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의 일본새에서 본받을 점이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자기것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의 고향땅을 빛내이려는 순결한 량심은 우리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투쟁정신이고 일본새라고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사랑과 량심으로 고향땅에 새겨온 이곳 3대혁명소조원들의 삶의 자욱자욱을 더듬어본다.

#### 《여기는 우리가 나써 자란 고향입니다》

몇해전 대학졸업을 앞둔 우정명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텔레비죤과 방송에서 소개되는 중요전투장들에 달려나가 대학기간에 무르익힌 꿈과 리상을 한껏 펼쳐보이고싶은것이 그의 심정이였다. 하지만 그는 지망란에 《양덕군》이란 세 글자를 새겨넣었다. 추천서를 손에 쥐여주며 대학으로 떠밀어주던 고향마을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간곡한 당부가 그를 고향땅으로 이끌어갔던것이다.

—고향땅을 빛내이는 길에 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자.

의아해하는 일군들과 선생님들에게 그는 말했다.

《고향땅을 빛내이고싶습니다.》

이것이 어찌 우정명동무 한사람만의 심정이라 하랴.

조금룡, 김금철, 변경진동무들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안고 고향땅으로 달려왔다.

그때 소조책임자 우정명동무는 소조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경험도 지식도 아직은 어립니다. 그러나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 바로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고향땅을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활짝 꽃펴나는 리상촌으로 꾸려나갑시다!》

다음날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력력히 어려있는 치마대등판으로 올랐다.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해돋이를 바라보며 그들은 맹세했다.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고향땅을 빛내이는데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리라!

#### 자기의 창조물에 깨끗한 량심을 묻자

—하나를 연구하고 만들어도 손색이 없게, 실지 덕을 볼수 있게.

이것이 이 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의 량심이고 일본새이다.

지난 몇해동안 이들이 이룩해놓은 10여건의 성과자료들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비록 그 성과들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것도, 첨단분야의 연구성과도 아니지만 거기에 바쳐진 그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하여 그렇듯 소중한것이다.

초무연탄리용에 대한 연구과정을 놓고도 말할수 있다.

다른 지방들에서의 성과자료에 기초하여 시작한 일이였으나 연구사업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듭되는 실패, 겹쌓이는 애로와 난관으로 주저앉은적은 그 몇번이였던가.

그때마다 그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념원을 실현하기전에는 쓰러질 권리도, 휴식할 권리도 없다는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군 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였으며 끝내는 시험에서 성공하게 되였다.

소조원들모두가 기쁨에 겨워 서로 얼싸안고 울고웃던 그때를 잊을수 없다며 소조원 김금철동무는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그때 모두 너무 기뻐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자동무에게 어서 우리의 성과를 당에 보고하자고, 우리가 기어이 해냈다고 어서 보고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동무는 머리를 흔드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우정명동무는 소조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물론 우리의 성과는 결코 작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무결하다고 할수 있는가. 실지 덕을 볼수 있게 만들어졌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립장에서 일하자. 인민들이 좋다고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도달할 결승선이다. 우리의 창조물에 깨끗한 량심을 묻자.

* *

그들은 오늘도 이렇게 가고있다.

이들이 걷는 창조의 길, 그것은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어머니 우리 당과 고마운 조국, 고향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된 애국의 길, 순결한 량심을 묻는 충정의 길이기에 그토록 값있고 빛나는것 아니겠는가.

한 영 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생산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천일용필수품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 열정과 열매

### 동평양화력발전소에서

수도의 동력기지의 밤은 바닥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그밤 자력갱생직장과 열설비보수직장 현장에서는 기계의 동음을 누르며 열띤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 주인공들은 기능공들과 함께 광재솜생산설비를 만드느라 밤을 지새우고있는 동평양화력발전소 3대혁명소조원들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제일 걸리고있는 문제,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술혁신의 종자로 찾아쥐고 연구를 심화시켜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이라를 비롯한 열설비들에 없어서는 안될 광재솜생산설비제작을 소조원들이 맡아하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지난해까지만 하여도 발전소에서는 광재솜을 다른 단위에서 공급받아 쓰고있었다.

전력증산의 중요방도를 자력갱생에서 찾은 발전소초급당위원회에서는 자체로 광재솜을 생산할것을 결정하고 생산기지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수행을 3대혁명소조에 맡겨주었다. 최첨단돌파전의 기수인 3대혁명전위들의 드높은 열정과 진취성을 믿어서였다.

당조직의 믿음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격동시켰다.

그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설계도면작성을 끝낸데 이어 설비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용해로를 짧은 기간에 쌓고 송풍장치제작에 들어간 소조원들앞에 난관이 조성되였다. 노즐의 공기배출변제작이 생각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바람방향각도를 정확히 맞추기가 조련치 않았던것이다. 며칠동안이나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소조원들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기능공들을 찾아가 배우기도 하고 론쟁을 심화시키기도 하면서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였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소조원들에게 나래를 달아준것은 당조직의 사랑이였다. 맥을 놓을세라 자주 현장에 나와 고무해주고 부속품을 해결해주는가 하면 힘들세라 자동차도 보장해준 고마운 손길…

드디여 성공하였다. 광재솜생산의 돌파구가 열렸다.

소조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드높은 열정, 당조직의 지도와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방조에 의하여 송풍장치와 콘베아를 비롯한 설비제작은 마감단계에서 진행되고있다.

광재솜생산기지만이 아니였다.

소조원들모두가 전력증산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문제들을 기술혁신종자로 찾아쥐고 완강하게 내밀었다.

소조원 량순미동무는 축전지충전장치의 정보화를 실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달라붙었다.

탐구의 길은 헐치 않았다. 힘겨워 주저앉고싶은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그는 자기를 3대혁명의 전위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생각하며 분발하였다.

인민대학습당으로, 대학으로, 지어는 지방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찾아 걷고걸은 길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고심어린 탐구끝에 그가 창안한 콤퓨터조종에 의한 축전지충전장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나날 그는 여러건의 국가발명권 및 창의고안증서를 수여받았다.

어찌 량순미동무뿐이랴.

배풍기축가공지구를 제작하여 보수기일을 훨씬 단축할수 있게 한 소조책임자 리영수동무와 소조원 김기호동무, 원통형부분품가공을 위한 지구제작을 비롯하여 여러건의 기술혁신안을 내놓은 김성혁동무, 절연재생산건조로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연구도입한 로명남, 홍영단동무들, 수동식철판 및 환강절단기와 연소효률이 높은 연재점화탄을 만들어내여 창의고안명수로 소문난 한경림, 리은정동무들, 타빈순환뽐프입구려과망개조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거품보온재연구에 진할줄 모르는 열정을 바쳐가는 한선경동무…

불같은 탐구의 열정은 훌륭한 열매를 낳았다. 3대혁명소조운동발단 40돐을 맞으며 진행된 평양시 3대혁명소조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서 동평양화력발전소 소조원들은 종합 1등을 하였으며 량순미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이 순위권에 입선하였다.

그렇다. 불같은 열정을 떠나 훌륭한 열매를 기대할수 없다. 열정과 열매는 쌍둥이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 올해를 떳떳이 총화할 열의에 넘쳐

###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인민경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줄 전기기구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년초부터 줄기찬 투쟁을 벌려 지난 10월중순까지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과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기념비적창조물들마다에는 무리등과 분전함을 비롯한 전기기구들을 정성껏 생산하여 보내준 이곳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위훈도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장의 당, 행정, 기술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기념일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년초부터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면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갔다. 기사장 최정광동무를 비롯한 참모부의 일군들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을 높이며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는데 힘을 넣으면서 자재보장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어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갔다.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분전함과 무리등을 비롯한 제품들을 인민경제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들에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생산의 선행공정인 소재준비직장과 형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소재준비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철판생산방법을 받아들여 각종 규격의 철판들을 원만히 생산하여 다음공정들에 보내주었다.

형타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화된 설비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프레스공정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무리등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각종 형타들을 짱짱 제작함으로써 생산성을 1.5배, 최고 2배로 끌어올리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과 자재를 절약하면서 지난 10월중순까지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분전함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분전함손잡이를 새로운 재료로 만들고 많은 철판소재를 비롯한 자재문제를 앞질러 풀어나가면서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과 탄광들에 보내줄 분전함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켰다.

공장의 설계연구소의 설계원들은 새형의 무리등설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생산자대중과 지체를 합쳐가며 원만히 풀어나갔다.

무리등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합리적인 방법을 창안도입하고 새로운 재료를 리용하여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대형무리등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생산보장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조작기구직장과 일반기구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고 교대가 교대를 돕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저항기와 개폐기, 교류접촉기를 비롯한 각종 전기기구생산을 본때있게 다그침으로써 매일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였다.

특파기자 박 동 석

#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바쳐가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

##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 황해북도의 여러 단위들에서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황해북도려단전투장에 도내근로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에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간 이들은 힘있는 경제선동활동과 로력적지원으로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 부탁을 잊지 않도록

지난 어느날 저녁 도농근맹위원회책임일군의 방에서는 밤늦도록 시, 군농근맹위원회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안건은 세포등판건설전투장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문제였다.

그날 협의회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해갈 드높은 결의밑에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뒤이어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진행한 이들은 자신들부터가 이 사업에 앞장섰다.

도농근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뛰였다. 시, 군농근맹위원회일군들도 세포등판건설전투를 함께 책임진 립장에서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이들만이 아니였다.

시, 군, 리의 농근맹해설강사들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자고 하면서 이 사업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순결한 량심을 바쳐갈 일념안고 이들은 가정에서 키우던 집짐승들도 아낌없이 바치였고 돌격대원들을 위하여 여러가지 후방물자들도 성의껏 마련하였다.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일군들과 해설강사들의 불같은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많은 량의 지원물자들은 짧은 기간에 마련될수 있었다.

며칠후 이들은 여러대의 화물자동차에 지원물자들을 나누어 싣고 돌격대원들을 찾아 세포등판건설전투장으로 향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돌격대원들에게 지원물자들을 넘겨주고 정다운 고향과 일터의 사람들의 부탁이 담겨져있는 편지들도 전해주었다. 그리고는 들끓는 전투장을 무대로 힘있는 경제선동활동을 벌리였고 그들과 함께 애국의 땀도 바쳐갔다.

세포등판건설전투장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도와나선 이들의 모습은 돌격대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바로 그들의 모습에 세포등판건설전투를 하루빨리 앞당겨 끝내고 어머니 우리 당에 승리의 보고를 드려달라는 고향사람들의 절절한 부탁이 비껴있었기때문이다.

이들의 힘있는 지원사업이 있은 후 돌격대원들은 조국의 믿음과 기대를 다시금 되새기며 혁신자의 영예를 계속 떨쳐나갈 결의밑에 분과 초를 위훈으로 수놓아나갔다.

###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고

당면한 먹이풀비배관리가 한창이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여러마리의 돼지, 염소들과 많은 후방물자들을 싣고 황해북도려단 신계군대대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신계미루벌토지개량사업소 지배인 한국천동무와 종업원들이였다.

많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수백리길을 달려온 그들을 맞이한 대대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뭉클하였다. 거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

당에서는 별로 한 일도 없는 그를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고 한개 사업소의 지배인으로 키워주었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탄생 100돐을 맞으며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도록 하였다.

그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속깊이 간직하고 사는 한국천동무였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인생의 참된 자욱을 새겨갈 마음안고 높은 사업실적으로 하루하루를 이어가고있던 어느날 한국천동무는 신문과 텔레비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에 결사의 실천으로 대답해나선 세포등판개척자들이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접하게 되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는 길에 나의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자.

그날 편지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한국천동무의 가슴속에는 이런 결심이 조용히 자리잡았다.

그날부터 한국천동무는 세포등판건설전투장을 성심성의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나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배려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일념안고 그는 지원물자들을 마련하는 사업에 진정을 바쳐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그의 안해 김순애동무가 자식들의 결혼식때 쓰려고 장만해두었던 밑천까지 내놓는것이였다.

그는 안해의 손목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다.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성의있게 잘하여 당의 은정에 보답할줄 아는 가정이 됩시다.》

숭고한 공민적자각을 안고 한국천동무와 그의 안해 김순애동무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이렇듯 깨끗한 량심을 바치였다.

언제인가 사업소의 종업원들이 아주머니가 앓고있는 형편에서 가정의 살림살이도 생각해야 할게 아닌가고 이야기한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할 때라야 이 나라의 참된 공민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여 종업원들을 감동시키였다.

이런 남다른 사연을 안고 세포등판건설장을 찾아온 한국천동무의 모습을 보며 돌격대원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결의들을 다지였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이런 공민들의 몫까지 합쳐 세포등판에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힘있게 울려퍼질 그날을 기어이 앞당기리라.

## 개척자들과 언제나 한전호에서

### 보건성일군들

보건성돌격대는 힘있고 전투력있는 단위의 하나로 소문이 났다.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먹이풀판조성은 물론 맡겨진 대상건설전투과제를 소문없이 남먼저 끝내군 하였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 비결에 대하여 이곳 돌격대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를 위하는 성책임일군들의 뜨거운 지성이 위훈창조의 밑거름이 되였습니다.》

우리는 얼마전 돌격대일군인 김동건동무로부터 그 사연을 알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 잘하는 일군보다 말은 없지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아글타글 애써 일하여 실적을 내는 일군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어느날이였다.

국장이상 일군들과 함께 성당책임일군이 세포등판건설전투장을 찾아왔다.

그날 돌격대원들을 모두 만나 생활형편을 료해해보고 돌아오는 책임일군의 마음은 가볍지 못하였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두텁게 얼어붙은 등판을 한치한치 점령해나가는 돌격대원들에게 생활터전 하나 변변히 마련해주지 못한 자책감이 컸던것이다.

그는 차에 싣고갔던 솜옷을 비롯한 생활용품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던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다시금 그려보며 지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새로운 결심을 가다듬었다.

성으로 돌아온 즉시 책임일군은 협의회를 조직하고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착시키기 위한 방도를 토론하였다. 뗄감을 보장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한시바삐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이 조직되였다.

책임일군은 실천적모범으로 성안의 모든 일군들이 이 사업을 자기 집일처럼 여기고 떨쳐나서도록 이끌어나갔다. 그리하여 새해 첫날 성과 산하단위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의 가정방문을 하였다.

성일군들은 성의껏 준비한 명절물자들을 가지고 강덕수동무를 비롯한 돌격대원들의 가정들을 찾아가 생활형편을 료해하고 즉시 대책을 세워나갔다. 돌격대원 김경진동무의 가족에게는 새 살림집도 마련해주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돌격대원들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며 온밤 잠들지 못하였다. 일군들의 진정에 끝없이 고무된 돌격대원들이 새해 첫 전투에 진입하여 작업과제를 두몫, 세몫씩 맡아 해제꼈다.

이렇게 시작을 뗀 일군들의 걸음은 날이 갈수록 더 잦아졌다.

많은 품을 들여가며 돌격대원들의 침실을 그 어느 단위들보다 제일 번듯하게 꾸려주고 먹이풀판조성에 필요한 뜨락또르와 련결농기계들, 여러개의 배낭식분무기, 많은 량의 연유와 먹이풀씨도 앞질러가며 해결해주었다.

바쁜 전투시기에는 수백명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로 로력적지원사업을 조직해주었다.

얼마전에는 성일군인 김형훈동무를 현지에 내려보내여 대상건설과제수행정형을 알아본 책임일군은 건축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세멘트와 강재, 여러대의 화물차를 해결하여 100여명의 로력과 함께 또다시 현장으로 보내주었다. 그리고 유리와 타일 등의 마감건재들도 제때에 해결해줌으로써 돌격대가 맡겨진 대상건설과제를 제기일내에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많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준비한 성의 일군들이 돌격대원들인 홍성준, 안영운, 전금철, 김학민, 하영걸동무들의 가족들과 함께 세포등판건설장을 찾게 하였다.

세포등판건설에 바쳐가는 성책임일군들의 바로 이런 헌신성과 순결한 애국의 마음이 있어 보건성돌격대는 전투력있는 단위로 자랑떨치게 되였던것이다.

## 함께 책임지는 립장

### 인민봉사총국 일군들과 종업원들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서 인민봉사총국돌격대는 맡겨진 전투과제를 앞당겨 끝내군 하는 자랑많은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그만큼 이곳 돌격대원들의 기세는 높다. 누구에게나 더 많은 땀을 아낌없이 바쳐 개척자의 영예를 계속 떨쳐가려는 신심이 차넘치고있기때문이다.

전투장에 나서면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두몫, 세몫씩의 일감을 맡아안고 일손을 다그치고있는 돌격대원들, 하지만 이들 못지 않게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중단없이 진행해나가고있는 그들은 다름아닌 총국일군들과 종업원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에게는 말로 하는 애국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애국이 필요합니다.》**

세포등판건설전투가 시작된 때로부터 많은 날과 달이 흘렀다.

그러나 총국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지원열의는 날이 갈수록 계속 높아만 갔다.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앞당겨 끝내는데 필요한것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해결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이런 마음을 안고 지난 기간 총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세포등판건설전투장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도와주었다. 특히 총국의 책임일군들은 아무리 사업이 긴장하여도 들끓는 전투장에 자주 찾아와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땅다루기에 필요한 륜전기재들과 연유를 지장없이 보장해주고 많은 량의 소석회도 마련해주어 돌격대원들이 맡은 먹이풀판조성과제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여러가지 문화오락기재들도 보내주어 그들이 혁명적열정과 랑만에 넘쳐 돌격대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해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성의껏 마련한 후방물자들을 가지고 찾아와 돌격대원들을 감동시킨적은 또 얼마였던가. 그도 그럴것이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대한 지원사업은 총국당위원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강하게 밀고나가는 사업의 하나로 되고있다.

먹이풀판조성에 이어 대상건설전투가 시작되던 지난 어느날이였다. 많은 후방물자들을 싣고 또다시 전투장을 찾아온 책임일군들인 김광성, 리영철동무들은 현장을 돌아본 다음 돌격대일군들과 한자리에 마주앉았다.

그날 돌격대일군들로부터 올해중에 맡겨진 대상건설과제를 끝내자면 자재와 로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들은 총국으로 돌아온 즉시 일군들의 협의회를 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리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의 앞장에 섰다. 세멘트와 강재를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해 책임일군들이 걸은 길은 그 얼마이고 지새운 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이렇게 마련된 연유와 건설자재들이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도착하여 대상건설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다음해에도 먹이풀판을 조성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많은 량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놓아야 한다는것, 특히 토양속에 린성분을 보충해주어 먹이풀판의 생산성을 과학적으로 담보하자면 수십의 가금배설물이 있어야 한다는것 등을 알게 된 총국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또다시 분발해나섰다.

그리하여 얼마전 20여의 가금배설물을 실은 첫 자동차수송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토양개량제생산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부쩍 높여주었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두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참된 삶의 행복을 찾을줄 아는 총국일군들과 종업원들이기에 오늘도 돌격대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변함없는 지원의 길을 걷고있다.

세포등판에 사회주의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질 완공의 그날까지.

## 높아가는 지원열의

각지 근로자들속에서 세포등판건설전투장에 대한 지원열의가 계속 높아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정평군 읍에서 살고있는 강금주동무는 지난 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전투현장에 찾아가 돌격대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해주었으며 그후 돌격대에 탄원하였다.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원 오미향, 만경대소년단야영소 로동자 손은희, 정평군 읍에서 살고있는 오춘옥, 룡악산지도국 산하단위 종업원 강정아, 인민보안부산하단위에서 일하는 리향미, 어랑군의 어느 한 기업소에서 일하는 장선애동무들은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지원물자를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돌격대원들속에서도 지원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다.

인민봉사총국돌격대 고수경, 김미향, 리순옥, 윤민숙동무들은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남먼저 전투장에 달려나와 풀판조성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으며 많은 물자들도 지원하였다.

보건성돌격대 허송희, 합영투자위원회돌격대 장금성동무들도 여러차례에 걸쳐 뜨거운 지성을 바침으로써 돌격대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이밖에도 평양시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리정임, 체신성 산하단위 로동자 박혜경동무들을 비롯하여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이 세포등판개간전투장을 성심성의껏 지원하였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평양시 대동강구역에서—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일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의장 회담

최태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씨다르또 다누쑤브로또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 의장의 회담이 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김완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길철혁, 김영남, 문상민, 김성히 대의원들, 관계부문 일군들이, 상대측에서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민협상회의대표단 성원들, 나스리 구스따만 주조인도네시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의회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 산중훈련기지에 나래치는 비약의 열풍

###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체육단에서

해주시에서 어느 한 리로 뻗은 길을 따라 수십리 올라가면 깊은 골짜기가 나진다.

경치좋고 맑고 시원한 물이 끝없이 솟아오르는 이곳에 김종태해주제1사범대학체육단의 산중훈련기지가 자리잡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체육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무겁고도 영예로우며 체육부문 일군들과 체육인들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큽니다.》**

얼마전 우리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른새벽이였다.

밝아오는 새날과 더불어 자기의 자태를 한껏 드러낸 산중훈련기지는 주변의 수림과 잘 어울리면서 한폭의 그림처럼 특유한 정서를 안겨주고있었다.

산중턱에 규모있게 들어앉은 여러동의 건물들과 숲속으로 일매지게 뻗은 달림길, 번듯하게 닦아놓은 야외롱구훈련장, 물고기떼흐르는 양어장들…

선수들의 훈련에 유리한 명당자리에 자리잡고있는 산중훈련기지는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였다.

산중훈련기지가 정말 볼만 하다고 하는 우리를 체육단일군인 송성원동무가 처음으로 이끈 곳은 전망도앞이였다.

《산중훈련기지전망도를 그릴 때가 엊그제같은데 지금은 그 모든것이 현실로 되였습니다.》

긍지와 보람이 한껏 실린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전망도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정말 그랬다. 전망도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꼭같았다.

주변에 심은 갖가지 수종이 좋은 과일나무들, 종목별훈련장들과 감독, 선수들의 사무실과 숙소, 한증칸이 달린 목욕탕과 식당, 교양실, 여러개의 양어못들, 토끼우리, 염소우리, 돼지우리를 비롯한 축산기지, 젖가공실, 남새온실, 하얗게 흐르는 염소떼…

송성원동무는 산중훈련기지를 자체로 꾸려나가던 나날들에 대한 추억을 펼쳐놓았다.

몇년전 체육단에서 산중훈련기지를 건설할 목표를 내세웠을 때에는 건설경험도 없었고 필요한 자재와 로력도 엄청나게 모자랐다. 하지만 아무리 힘이 들어도 체육단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지 않고서는 선수들의 훈련을 원만히 보장할수가 없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방도를 탐구하고 지혜와 힘을 합치면서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여 떨쳐나섰다. 일군들이 직접 현지를 밟아보면서 선수들의 훈련에 알맞는 자리를 찾아냈다.

공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체육단일군들이 필요한 자재를 보장하기 위해 걸은 길은 얼마이고 불리한 일기조건을 이겨내며 공사를 완강하게 내밀던 날들은 그 얼마였던가.

이 나날 체육단의 일군들이 건설현장에 나가 붉은기를 휘날리며 앞장에서 흙마대를 지고 달리고 그 뒤를 따라 종업원들의 가족들까지 떨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뿌려가던 이야기들은 참으로 감동적이였다. 우리의 눈앞에 산등성이의 바위를 까내고 품들여 한동한동의 건물을 건설하던 그들의 모습이 후덥게 안겨왔다.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해결해주며 적극 떠밀어주는 김춘하동무를 비롯한 대학책임일군들의 진지한 사업기풍이 이들의 투쟁을 더욱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산중훈련기지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어디를 보나 선수들의 훈련조건을 더 잘 갖추어주기 위해 애쓴 흔적이 뚜렷이 알리였다. 아담한 선수들의 숙소며 식당, 사철 맑은 물이 차넘치는 목욕탕, 계속 늘어나고있는 여러 설비 등에도 대중과 마음을 합쳐가며 체육단자체의 힘으로 선수들의 생활개선을 위해 애쓰는 단장 리창식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의 이악한 일본새가 스며있었다.

부업밭과 축산기지를 사시장철 땀흘려 가꾸어 선수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해준다는 리배선동무를 비롯한 후방부문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참으로 건물 하나, 나무 한그루에서도 체육기술발전의 밑뿌리가 되려는 이들의 애국의 한마음이 안겨와 모든것이 볼수록 인상깊었다.

이런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 산중훈련기지가 선수들의 기술발전에 한몫 단단히 한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최근년간 체육단에서는 여러명의 국가대표선수들이 배출되였다.

얼마전에 진행된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에서 이 체육단의 신영미선수가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선군봉화상체육경기대회 유술경기에서 신진선수인 장국철선수가 우승의 영예를 지니였으며 국내 마라손, 력기, 륙상경기들에서도 좋은 성과를 이룩한것은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것인가.

정말 보면 볼수록 떠나고싶지 않고 들으면 들을수록 자랑할만한 산중훈련기지였다. 훈련장에서는 책임감독 김수복, 감독 김광성동무의 열정적인 지도밑에 훈련이 맹렬히 진행되고있었다.

래일의 금메달을 위해 비약의 목표를 향하여 기운차게 달리고 달리는 손금란동무를 비롯한 선수들의 모습은 더없이 미더웠다. 기백있게 울리는 감독들의 힘찬 구령에 맞추어 체육기술을 알심있게 련마해가는 선수들의 눈빛마다에 기어이 조국을 빛내이는 당당한 패권자가 될 의지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아침안개 감도는 산기슭의 정적을 깨뜨리며 높이 울려퍼지는 훈련의 함성이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산중훈련기지에 나래치는 비약의 열풍을 싣고, 그것으로 하여 더욱 자랑찰 체육기술발전의 래일을 부르며…

본사기자 전철호

## 세네갈대통령에게

###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막키 쌀 세네갈공화국 대통령에게 10월 29일 홍선표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막키 쌀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실것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하는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그이께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김영남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것을 부탁하였다.

대통령은 세네갈과 조선사이의 관계는 오랜 력사를 가진 전통적인 관계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네갈을 진심으로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협조의 뉴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 제1차 아시아식품축전 우리 나라 민족료리에 금상 수여

중국 베이징에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1차 아시아식품축전에서 우리 나라 민족료리에 금상이 수여되였다.

16개 나라의 26개 식품가공전문단위들이 참가한 축전에 우리 나라의 신선로, 평양온반, 김치 등 30여종의 민족료리가 출품되였다.

시상식이 27일에 있었다.

## 프랑스, 뽀르뚜갈방문 조선로동당대표단 출발

프랑스를 방문하며 뽀르뚜갈의 수도 리스봉에서 진행되는 제15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리영철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전송하였다.

## 유럽나라들을 방문하였던 외무성대표단 귀국

유럽나라들을 방문하였던 궁석웅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2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일본국회 참의원 의원일행 도착

【평양 11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국회 참의원 의원 이노끼 간지와 일행이 2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 절절한 그리움, 혁명적랑만이 차넘친 예술인체육대회

얼마전 김일성경기장에서는 제44차 예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유서깊은 모란봉기슭을 세차게 흔들며 대회참가자들모두가 드높은 열의속에 다채로운 체육활동으로 전투적랑만을 한껏 꽃피운 그날 가슴마다에 차넘친것은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지도밑에 제1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44돐기의 년륜을 새긴 예술인체육대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체육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으로 되게 하려면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문화성의 책임일군은 예술인체육대회력사에 깃든 절세의 위인의 크나큰 사랑에 대하여 가지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마디마디 격정에 넘친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예술인체육대회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다정하신 음성, 열정넘친 음성이 쟁쟁히 들려오는듯하였다.

예술인들속에서 체육대회를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체육경기를 조직하면 집단주의정신을 키울뿐아니라 체력을 튼튼히 단련할수 있다. 체육의 대중화방침을 관철하려면 체육경기를 몇몇 선수본위로 조직할것이 아니라 될수록 많은 군중이 참가할수 있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집단의 사상의지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이 예술인체육대회의 중요한 목적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경기종목을 하나 선정하여도 그 목적에 맞게 축구를 비롯한 집단경기를 위주로 하면서 거기에 개인경기를 배합하여야 한다. 예술인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에서 이기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경기에 참가하여 조직성과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여야 한다.

매개 예술단체들에서 예술인들의 특성에 맞게 춤도 추고 응원가도 부르면서 저저마다 재간을 부리게 되면 응원도 볼만 할것이다. 응원도 잘 조직하면 집단의 단결된 힘과 조직성, 규률성을 남김없이 시위할수 있다. …

이처럼 예술인체육대회의 목적과 그것이 가지는 의의, 선수들의 선발원칙과 경기종목의 선정, 선수들의 복장문제, 응원조직과 경기심사방법, 시상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그뿐이 아니다. 제1차 예술인체육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을 때에는 경기에서 우승한 예술인들을 위해 연회까지 차려주도록 하시였다.

천금같이 귀한 시간을 내시여 예술인들의 체육대회를 보아주신것만도 영광인데 우리 예술인들이 청춘의 활력으로 문학예술혁명의 포성을 더욱 힘있게 울려나가도록 고무해주신 그 사랑, 그 은정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을수 없다고 하는 일군의 흥분된 목소리가 우리의 가슴에도 한없는 그리움의 격랑을 일으켰다.

국립교예단 총장 인민예술가 박수억동무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인가.

수십년전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예술인체육대회를 진행할 때 그는 20대의 새파란 청년이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희극교예의상을 입고 자기 단위의 응원을 지휘하던 한 교예배우를 친히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경기응원에 대해서, 새로운 교예작품창작에 대하여 관심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박수억동무와 교예배우들은 크나큰 감격과 희열을 금치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제1차 예술인체육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30돐이 되는 해에 또다시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한 예술인체육대회때에는 교예단의 창작일군의 한사람으로 참가한 격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크나큰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는 총장의 말을 들으며 경기장을 바라보느라니 희열과 랑만에 넘친 선수들의 모습도, 서로 경쟁적으로 응원하는 드높은 응원열의도 새로운 눈길로 대하게 되였다.

패기와 정열이 넘친 선수들의 그 모습에 이끌려, 그럴수록 더욱 고조되는 응원열풍에 이끌려 우리는 취재를 심화시켜나갔다.

씨름경기에 참가하여 체격이 우람찬 상대방을 재치있는 안걸이로 물리친 조선영화문학창작사의 작가 한명천동무도, 앞무릎치기로 만만치 않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긴 국립교예단 배우 리광모동무도 창작의 여가시간에 익힌 씨름기술로 통쾌하게 승리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남녀400m이어달리기경기에 출전하여 무대예술부문이 1등을 하는데 기여한 중앙예술경제선전대 대장 인민배우 최광호동무는 어떻게 그처럼 잘 달릴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대고조전역들에서 더 높이 울려가자면 우리들자신이 오늘처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그 종목에서 아쉽게 2등을 한 영화예술부문의 선수는 다음번 예술인체육대회에서는 기어이 우승할 결심을 토로하였다.

《정말 아쉽습니다. 하지만 대중체육을 더욱 활발히 벌려 다음번 대회에서 이 종목은 물론이고 다른 종목들에도 출전하여 기어이 우승하겠습니다. 사실 체육대회의 모든 종목들은 우리 배우들의 기량훈련에도 꼭 필요한것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화예술부문의 선수는 우리 인민들속에서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로동계급편에서 송옥이로 통하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인민배우 리경희동무였다.

축구경기의 휴식참에 관람석에서는 이채로운 응원들이 펼쳐져 대회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태권도복을 입고 특기동작들을 능숙하게 수행하는 각 부문단체들의 이채로운 응원모습을 바라보던 텔레비죤극창작사의 인민배우 석성제동무도 자기의 흥분된 소감을 터놓았다.

《저 모습을 보느라니 저의 미숙한 태권도특기동작을 보아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위대한 장군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그때 불철주야 조국과 인민을 위해 로고를 바쳐가신 그이께 잠시나마 기쁨을 드렸다고 생각하니 온몸에 새 힘과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장군님을 모셨던 영광의 그날에 삽니다.》

이것이 어찌 그 한사람의 심정만이랴. 흥겨운 농악무와 부채춤, 경쾌하면서도 씩씩한 총춤을 펼치는 응원자들의 률동에서도, 웃음을 자아내는 각종 유희오락경기와 치렬하게 승부를 다투는 구기종목경기들에 출전한 선수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모셨던 영광의 그날에 살며 희열과 랑만에 넘쳐 대중체육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리며 신심드높이 예술창조사업과 예술교육사업 등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려는 전체 예술인체육대회참가자들의 불같은 마음을 읽을수 있었다.

그 신심, 그 열정을 담아서인가 모란봉의 하늘가에 희열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더 높이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백 성 근

#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분출

## 각지에서 보내여온 글작품들을 보고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이 현실로 활짝 꽃펴나는 지금 이 땅 어디서나 고마운 삶의 품에 대한 감사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독자들이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여오는 글작품들을 통해서도 어머니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신뢰심과 감사의 정이 얼마나 열렬한것인가를 잘 알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어머니당이라는 말속에는 우리 당에 대한 두터운 신뢰와 함께 장래운명까지 보살펴줄것을 바라는 인민들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있습니다.》**

선천군에 사는 주영림동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오늘의 시대에 수풀처럼 일떠서는 인민을 위한 건축물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자기의 소감을 담은 감상글 《시대를 노래하며》를 본사편집국에 보내여왔다.

《…우리에게는 삶의 보금자리 어머니조국이 있다. 흘러가는 날과 달속에 사회주의제도의 고마움을 가슴뿌듯이 느끼는 때가 한두번만이 아니다.

전국적범위에서 실시되고있는 먼거리의료봉사며 훌륭히 일떠선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 등 우리 인민을 위해 실시되는 사랑의 조치들은 얼마나 만사람을 감동시키는것인가. …》

흐르는 분과 초가 그대로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차있는 격동적인 현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정의 끝없는 세계를 안겨주고 있으니 조선인민군 군관 리원호동무가 쓴 시 《미래가 안겨사는 집》은 또 얼마나 감동깊은것인가.

내 조용히 불러보노라
사랑의 집—옥류아동병원
…
제 집뜨락 유치원마당
그리워할세라
훌륭히 꾸려놓은 놀이터
친아버지인들 생각했으랴
자애로운 어버이손길이여

정녕 그 사랑이였구나
장재도의 어린 항명이를
안아주시던 그 사랑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또 하나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구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어머니당의 뜨거운 인민사랑에 매혹된 인민의 진정에 넘친 토로가 글줄마다에서 울려나오고있어 우리의 마음도 불덩이처럼 달아오른다.

재령군에 사는 옥성만, 성천군의 안병숙, 라선시의 홍옥희동무들도 자신들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더욱 뜨겁게 절감한 어머니당의 고마움을 시와 가사에 담아 뜨겁게 노래하였다.

사는 곳과 나이는 서로 달라도 당을 따라 일편단심 충정의 한길만을 가려는 천만군민의 심정을 담은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작품들은 그대로 선군조선의 문단을 장식하는 한떨기 꽃으로 우리 가슴에 의미깊게 안겨들었다.

본사기자 박 옥 경

# 시대의 명곡을 높이 부르며

2.8직동청년탄광의 **탄부들**이 천만군민의 애국의 지를 천백배로 다져주는 시대의 명곡 《조국찬가》를 높이 부르며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탄광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속에 명곡에 담겨져있는 숭고한 내용을 깊이 있게 해설해주는 한편 노래보급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모든 갱, 직장들에서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노래보급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시대의 명곡과 더불어 탄부들을 새로운 혁신과 위훈에로 적극 고무추동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이 참신하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 조국을 천하제일강국으로 빛내여가려는 천만군민의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는 노래 《조국찬가》는 탄부들의 가슴속에 증산의 열망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탄부들은 노래 《조국찬가》를 심장으로 부르며 석탄생산에서 기세를 부쩍 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김 청 일

# 아름다운 민족의 향기

## 제11차 전국조선옷전시회장을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살구나무를 많이 심으면 봄에 꽃이 필 때 보기도 좋을것입니다.》**

살림집지구를 비롯하여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를 아름답게 꾸리는데서 수종이 좋고 관상적효과가 큰 나무를 심는것이 중요하다.

살구나무는 벗나무과 벗나무속에 속하는 잎지는 넓은잎 작은 키나무이다.

높이는 5~7m이며 나무껍질은 검은 재빛 또는 검은 밤색이다. 잎은 어기여나며 잎몸은 둥근 닭알모양 또는 넓은 타원형(길이 5~10㎝, 너비 4~6㎝)이고 끝부분은 점차 좁아져 길게 뾰족하고 밑은 둥글거나 넓은 쐐기모양이며 변두리는 끝이 무딘 잔톱이 모양이다.

## 관상적효과가 좋은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잘 자라고 관리하기 쉬울뿐아니라 관상적효과도 좋은 나무이다.

꽃은 4월경 잎이 돋기 전에 연분홍색 혹은 분홍색으로 2개 이상씩 피며 열매는 6~7월경에 익는다.

살구나무의 열매에는 당분이 20%정도, 각종 비타민 등이 들어있어 사람들의 건강에도 아주 좋다.

살구나무는 봄철에 일찌기 꽃이 많이 피여 풍치를 한껏 돋구기때문에 거리와 마을을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시원한 그늘을 지어준다. 그리고 심은 후 4~5년이면 열매를 수확할수 있다.

살림집지구에는 이런 살구나무를 많이 심는것이 좋다.

살구나무는 한번 심어만 놓으면 큰 품을 들이지 않고도 그 덕을 볼수 있다.

살구나무는 토양을 그리 가리지 않으며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란다. 그러나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땅에서는 힘들게 자라기때문에 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중성 또는 약산성토양, 토양깊이는 50㎝이상 되는 곳에 심어야 한다.

살구나무는 해빛에 대한 요구성이 매우 높으므로 한해생육기간에 해비침시간이 1400~1600시간인 지대에서 잘 자란다. 해빛이 부족하면 가지가 헛자라고 꽃눈이 적게 생기며 열매가 채 익기도 전에 떨어진다.

살구나무는 년평균기온이 5~10℃이고 4월부터 10월사이의 평균기온이 14~18℃, 최저온도가 령하 28℃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지대에서 아주 잘 자란다.

살구나무는 량강도, 자강도의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 800m아래의 모든 지역에서 재배할수 있는데 추운 지방에서는 회령백살구나무, 북청참살구나무 등 추위견딜성이 센 품종을, 비교적 더운 지방에서는 만경대살구나무, 개암살구나무, 약살구나무, 큰황금살구나무를 선택하여 심어야 한다.

뿌리목직경이 2㎝이상, 나무높이 1m이상 되는 2년생이상의 접모를 심어야 하며 움이 빨리 트기때문에 봄에 인차 심는것이 좋다. 심을 구뎅이는 너비 0.8m, 길이 0.6m정도 되게 파는것이 좋으며 토지조건에 따라 유기질거름 5㎏정도와 질소, 린, 카리 등의 화학비료를 주고 심을수도 있다.

살구나무모양잡기는 종자름원대모양 또는 끝자름원대모양으로 할수 있는데 나무밑둥높이를 40~60㎝, 원가지사이거리를 20~60㎝, 한개의 원가지에 부원가지는 2~3개로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며 부원가지사이거리를 70~80㎝ 되게 만든다.

살구나무가지자르기는 가지솎음을 위주로 하여야 하는데 말라죽은 가지, 밴 가지, 병든 가지 등은 제때에 잘라버려야 한다.

잘라주기를 알맞게 하여야 열매소출을 높일수 있으며 살림집지구를 비롯한 거리와 마을을 더 아름답게 장식할수 있다.

국가과학원 식물학연구소 연구사 김 문 성

며칠전 우리는 청년중앙회관에서 제11차 전국조선옷전시회가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았다. 옷본보기출연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원형으로 전시된 우아하고 아름다운 조선옷들을 바라보느라니 우리가 마치 황홀한 꽃밭 한가운데 서있는듯 한 심정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옷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다양하게 해입으면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을 옳게 살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만난 식료일용공업성 피복연구소 실장인 심준찬동무는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적미감에 맞게 우리 식의 옷을 더욱 발전보급시키기 위해 이번 제11차 전국조선옷전시회는 《애국의 넋이 어린 우리 식 옷》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조선옷협회에서 중점을 둔것이 각 단체들이 전시하는 제품들마다에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 옷의 기본구성요소들인 형태, 색, 장식, 무늬, 재질의 다양화와 현대화를 보장하도록 한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700여점의 조선옷과 사시절에 따르는 여러가지 형태의 옷 500여점, 모두 1200여점이 출품되였다. 옷본보기출연과 피복기술도서보급, 옷설계와 가공에 대한 강습 등도 진행하는 이번 전시회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은 대단하였다. 심준찬실장은 매일 수천명의 사람들이 전시회장을 찾아오는데 전시품들에 대한 호평이 지난 시기에 비해 매우 높다고 자랑삼아 말하는것이였다. 이것은 또 한단계 비약한 조선치마저고리를 비롯한 우리 식 옷의 발전면모와 전시회참가자들의 경쟁열의를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잠시후 우리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전시회에서 여러번 특등을 한 경험을 살려 고상하고 우아한 조선치마저고리의 색배합과 꽃장식에 큰 힘을 넣은 중구역종합양복점 종로조선옷점 책임자 조정순동무, 지난 시기의 전시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이어 이번 전시회에서는 명절옷, 일상옷, 결혼식옷, 어린이옷들의 하나하나에 자기의 개성을 더욱 살린 원산시편의봉사관리소 동해조선옷점 책임자 리향옥동무, 두 딸도 조선옷전문가로 키워 이번 전시회에 함께 참가했다는 황해북도의 김영권, 윤정실부부, 조선치마저고리의 특성을 잘 살리기 위해 많은 탐구를 한 동대원구역종합양복점 신리조선옷점의 권순금동무…

특히 평안북도의 옷전시대앞은 유별하게 많은 사람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우리가 심사자들과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는 비결에 대하여 묻자 신의주시편의봉사관리소 채하조선옷점 책임자 김금실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옷들에는 저희들의 노력만 깃들어있지 않습니다. 도와 시의 일군들이 직접 나서서 여러차례 심사를 조직하고 우수한 제품들이 나오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올 때 우승을 내다보며 달려왔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다심하신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조선치마저고리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합쳐 이악하게 노력하던 나날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적이였다.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감탄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다운지 옷이 아니라 하나의 미술작품을 보는것 같다, 결혼식옷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라도 다시 처녀시절로 되돌아가고픈 심정이다, 우리 조선치마저고리가 세상에서 으뜸이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갈마든다는 사람들의 격동된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의 절정에로 치달아오르는 조국의 벅찬 숨결을 느끼게 되였다.

온 강산에 퍼져갈 민족의 독특한 향기와 더불어 문명한 생활을 더욱 마음껏 향유하게 될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전시회장을 떠났다.

글 본사기자 김 명 훈
사진 본사기자 한 광 명

#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승마풍습(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리고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천년강대국 고구려의 정치문화가 후세에 미친 영향은 막강하다. 승마풍습을 위주로 한 상무적기풍 역시 후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고려말—조선봉건왕조초기에 활동한 권근(1352—1409)은 자기의 글에서 《…고씨부터 상무적기풍이 강하며… 풍속이 용맹하여 부강한 위업에 족하였다.》라고 썼다. 또한 《주몽씨이래로 고구려사람들은 말타고 하는 활쏘기를 잘 익혀 드디여 풍속으로 되였다. 비록 수나라와 당나라의 병력이 성하였으나 고구려사람들을 항복시킬수 없었으니 그날래고 용감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수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51 평양부, 풍속)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주몽씨라는것은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를 말하는것이고 풍속으로 되였다는것은 승마풍습이 하나의 전통으로 고착되여 확립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고구려의 승마풍습과 승마에 필요한 말을 부리는 기구들과 말치레거리들은 동족의 나라들인 백제와 신라, 가야에 널리 보급되였다. 이에 대하여서는 여러 고고학자료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백제의 청주 신봉리유적과 신라의 천마무덤 등에서는 고구려적색채가 진한 마구류들이 드러났다. 일찍부터 고구려의 속국적지위에 있던 신라는 고구려문화를 섭취하면서 발전하였다. 부산 복천동유적을 비롯하여 가야, 신라마구들에 비낀 고구려적색채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조선의 승마풍습은 이웃나라들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일본에 준 승마풍습의 영향은 막강하였다. 원래 일본렬도에는 소와 말, 표범과 호랑이, 양과 까치가 서식하지 않았다. (《삼국지》 위지 동이 왜인전)

그러던것이 조선사람들의 영향하에 일본의 원주민들은 말을 알게 되고 말을 타게 되였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력사문학책인 《고사기》와 《일본서기》(권10, 응신기 15년)에서는 백제왕이 아지끼를 파견하여 암컷 1필과 수컷 1필 계 두필을 보냈다고 하였다. 력사기록상 일본에서 글의 보급과 함께 말보급에 대한 첫 기록이라고 할수 있다. 일본의 오랜 마구류는 모두 조선계통유적에서 드러났다. 말을 부리고 사육하는것은 어렵고도 중요한 기술이 요구되므로 당시의 일본원주민들은 엄두도 낼수 없었다. 일본에서 말사육과 부림, 나아가서 승마풍습의 시작과 보급, 기병대의 창설과 파급은 전적으로 조선사람들에 의해 진행되였다. 이런데로부터 말을 조선말로 부르게 되였는데 말이라는 일본말 《우마》는 조선말 《말》과 연원이 같다고 하는 설(《광사원》 이와나미서점)이 강하다. 그리고 말을 《고마》라고도 하는데 《고마》는 곧 고구려이다. 그것은 일본에서 승마풍습을 보급시키는데서 결정적작용을 한 고구려의 막강한 영향에 기인된다고 보아진다. 다시말하여 일반적으로 말을 일본에서 《우마》라고 부르지만 또 어떤 때는 《고마》라고도 부르군 하였다. 그것은 시나노(나가노현)지방을 비롯한 일본렬도에 보급된 고구려적승마풍습의 강한 영향에 기인된다.

승마풍습은 고구려시기와 후세나라들인 발해와 고려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련면히 이어졌다.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하여 고려라고 한 고려사람들은 고구려에서 형성확립된 말타고 하는 활쏘기와 칼쓰기, 창쓰기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고려에서는 건국초시기부터 고을들에서 용감하고 힘이 세고 날랜 젊은이들을 골라 궁마(말타기와 활쏘기)를 배워주는것을 국가의 법으로 정하였다. (《고려사절요》 권4, 정종5년 6월) 그리고 이러한 사어(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고 힘이 센 사람들을 적에 대한 방어에 써먹도록 국가적조치가 취해지군 하였다. (《고려사》 권81, 병1, 5군 신우 3년)

민간에서도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무사들이 모여 자주 경기를 진행하군 하였는데 지면음식을 내군 하였다. 봉건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도박행위로 번져질가봐 엄격히 금하군 하였으나 무예를 익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죄로 치군 하였다. 그중에는 한희유와 같이 말을 타고 나는것처럼 불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담력을 가진 장수들이 적지 않았다. (《고려사》 권104, 렬전 한희유)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지방고을에서 뽑은 한희유와 같이 담력이 있고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무사들로 신기군(귀신같은 기마술을 가진 부대), 마별초(기마특별부대) 등의 특수부대들을 무어 왕궁호위와 함께 국가방어부대를 편성하였다. 이러한 기마특별부대가 진행한 《마희》, 《희마》, 《롱마희》 등의 자료들이 《고려사》에 수없이 기록되여있다.

특히 기병들이 진행한 격구가 성행하였다.

격구란 말타고 진행하는 경기로서 여러명이 두패로 나뉘여 각기 마당가운데 있는 공을 향해 일제히 말을 몰아 맨 먼저 공을 차지한 사람이 상대방 공문우로 공을 채로 쳐내는 경기이다. 기마수들은 저마끔 공을 쫓아서 가는데 능숙한 말몰이기술과 완력, 재치있는 장치기기술이 요구되였다.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무사들은 격구를 말타고 하는 활쏘기와 칼쓰기, 창쓰기의 묘리를 체득하는데 필요한 경기종목으로 인정하고 활발히 진행하였다. 지어 고려에서는 부녀자들까지도 용감하게 말을 타고 격구를 하였다는 기록(《고려사》 권14, 예종 11년)이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도 고려에서 성행한 말타기와 활쏘기가 국가적으로 장려되였다. 말타기와 활쏘기는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국방에 매우 유익한 무술체육이였으므로 국가적견지에서 볼 때에도 매우 유익하였다. 그리하여 국왕을 비롯한 봉건통치배들은 《조선의 장끼는 말타기와 활쏘기》라고 강조하군 하였다. 15세기 전기간 조선봉건왕조에서는 말타기와 활쏘기를 장려하였는데 말을 나라의 세가지 보물중의 첫째로 꼽군 하였다. (《세조실록》 권20, 6년 5월 무자)

특히 이 시기 이채를 띤것은 마상재였다.

마상재는 말그대로 말우에서 재주를 부리는것인데 달리는 말우에서 서서 달리는것, 말안장을 잡고 좌우로 몸을 뒤채기도 하고 말에 매달려 발을 땅에 끄는 동작, 달리는 말안장우에 등을 대고 옆으로 눕는 동작, 거꾸로 서있는 동작, 말배때기에 붙어 몸을 숨기는 동작, 눕는 동작 등 다양한 동작을 진행하는것이다.

이러한 마상재는 아이적부터 하는데 고구려때부터 시작되고 고려시기에 성행하였다. 고려때의 기록에 나오는 《롱마희》, 《전유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유마》(《고려사절요》 권15, 고종12년 8월 9일)란 행차하는 국왕앞에서 하는 말우에서의 재주로서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 보는 교예와는 달리 《전유마의 장교들의 안마와 의복들이 선명하니 임금이 대단히 기뻐하였다.》라고 한것을 보면 임금이나 권력자들앞에서 온갖 기교를 부린것으로 보아진다.

《전유마》를 하는 기마수들은 옷도 사치하였으며 안장을 비롯한 말의 치레거리도 매우 화려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마상재는 바로 이와 같은 고려시기의 마상재를 더욱 계승발전시킨것으로 보아진다.

우리 나라의 마상재는 섬나라 일본땅에도 보급되였다.

1607년부터 10여차에 걸쳐 일본땅에 사신으로 간 《조선통신사》를 통하여 조선의 마상재를 선보였더니 도꾸가와막부의 대신들이 눈이 뒤집힐 정도로 놀라와하였다. 그리하여 1635년 일본봉건정부가 정식으로 마상재를 하는 수십명의 기마수들을 보내줄것을 간청(《인조실록》 권30, 12년 12월 경인, 임진)할 정도였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먼 옛날부터 전통적인 승마풍습을 련면히 이어오면서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조국강토를 지켜냈으며 그 우수한 문화를 널리 전파시켰다.

오늘 승마운동은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다. 세계적으로 경기장에서 경마를 하고있는 나라는 80개가 넘는다.

근대적인 체육운동으로서의 마술은 서유럽의 부유한 계층에서 발생보급되였다. 그래서 마술은 보통 유한계층의 《취미의 승마》로 불리운다.

1921년 국제마술련맹이 조직되였다. 이 련맹은 올림픽의 마술경기와 경마경기 등을 총괄하고있다.

승마학교는 승마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승마구락부는 말탈줄 아는 사람, 말타기를 배우려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등 여러 사람들이 승마취미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이다.

지금 세계도처에 승마구락부가 있지만 운영자금이 많이 들기때문에 대체로 경기용말(경마), 마술3종에 참가하는 말육성과 기수양성에 힘을 넣고있다. 승마복은 흔히 긴 가죽장화에 검은색, 곤색, 쥐색옷을 입으며 여름에는 흰옷을 입는다. 모자를 쓰며 웃저고리는 허리를 감쌀 정도로 길어야 하고 올림픽출전선수는 빨간 렵기복(기마수들의 사냥용옷)을 입는것이 상례이다.

미림승마구락부는 로동당시대에 펼쳐진 현대적인 승마문화의 중심이며 보급기지이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미림승마구락부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일떠서도록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시였다. 당이 인민들에게 선물로 안겨준 미림승마구락부는 62만 7000여㎡나 되는 방대한 면적의 부지에 승마주로들과 함께 승마봉사를 위한 수십동의 건물들이 자리잡고있는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이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멋있게!

이것이 바로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지도하시면서 우리 원수님께서 펼치신 구상이였고 다지신 확고한 결심이였다.

그리하여 미림승마구락부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세상에 자랑할만 하게 자그마한 손색도 없이 꾸려졌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돈많은 자들이나 하는 승마운동이 인민이 주인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평범한 인민들이 전통적인 승마풍습을 이어나가며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중적인 운동으로 되게 되였다.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은 날로 높아가는 인민의 문화정서적요구에 맞게 어머니당에서 훌륭히 꾸려준 미림승마구락부에서 행복의 말발굽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해나갈것이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은 이렇게 희한한 현실로 하나하나 실현되여가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후보원사 교수 박사 조희승

(끝)

#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절세의 애국자

특출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동포애, 애국애족의 의지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분렬된 민족의 아픔을 가셔주시려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할수록 가슴뜨거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기어이 펼쳐놓으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탁월한 령도에 의해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되였다. 정녕 격정없이 새길수 없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속에 민족의 통일운동은 력사의 준엄한 도전을 물리치며 전진할수 있었다.》

새 력사연구회 회원 정진철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중이 자주세상으로 가는 관문이며 민족적대번영의 첫걸음이다. 허나 통일에로의 길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통일을 방해하는 미국, 그에 아부하여 부귀영화를 꾀하는 보수세력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껴야 한다. 이 통일의 신념을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시였다.

민족자주! 바로 그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은 김정일장군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의지의 산아이다.》

민권연구소의 한 상임연구위원은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운 회담이다. 특히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친다면 민족의 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이 짙게 깔려있다.》고 주장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6.15자주통일시대가 개척되고 10.4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겨레가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대행진곡을 장엄하게 울릴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민족의 구세주, 절세의 애국자이시다.》고 칭송한 부산의 재야인사와 《력사적인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해주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업적과 로고는 민족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고 격찬한 기업가, 《이남과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령도자님을 못 잊어 그리워하고 있다.》고 말한 한 정치학교수의 가슴마다에도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전주시에 사는 한 재야운동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 나서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민족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성업에 손잡아 이끌어주신 김정일령도자님의 숭고한 뜻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믿음을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고 절절히 말하였다.

통일련대 성원으로 활동하는 한 재야인사는 력사적인 평양상봉이 마련되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벅차오름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김정일령도자님은 남북의 불신의 얼음장을 순간에 녹여버리시고 온 민족을 따뜻한 품에 감싸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시다.》라고 높이 칭송하였다.

서울의 한 언론인은 《우리 민족성원들에게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해주신 김정일령도자님이시야말로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고 통일을 위해 로심초사하신 참다운 애국자, 통일의 구성이시라는것을 절감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밝혀주신대로만 하면 통일도 이룩할수 있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누리에 떨칠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남녘겨레의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은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여 통일조국의 래일을 기어이 앞당겨오고야말 굳은 맹세로 이어지고있다.

충주의 한 언론인은 《김정일령도자님의 민족통일사상과 뜻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지성인의 량심과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지켜 삼천리가 하나로 되는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령도자님의 통일웅지를 각계에 널리 선전하고 그 실천에 열정을 다해갈 결심이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피력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는 뜨거운 마음들을 담아 게재한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자주정신을 따르고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조국통일방안을 받들면 통일은 분명 밝아오는 아침처럼 우리에게 다가올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결단은 그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비범한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행복의 창조자, 정의의 수호자이시다. …》

6.15, 10.4국민련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는 길은 민족의 희망이고 살길이며 이를 거역하면 파멸의 나락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로동본부, 민주로총은 모든 로동자들이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아래 북의 로동자들과 련대와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여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과 맞서 투쟁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 통일운동단체는 10.4선언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통일을 추동하며 6.15공동선언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고 하면서 우리민족끼리기치높이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설것이라고 밝혔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련대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우리민족끼리기치로 6.15통일시대를 활짝 여시여 민족의 전도에 크나큰 업적을 남기셨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리정표를 수놓으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업적과 로고는 력사가 기억할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의 보검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다함없는 감사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면서 통일애국의 길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다.

본사기자 김현철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을 관철하기 위한 총련문화예술인들의 모임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65돐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을 관철하기 위한 총련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 10월 28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한동성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선전문화국 국장, 김상일상임위원, 김정수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문예동) 중앙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룡수 금강산가극단 단장, 김혁순 도꾜조선가무단 단장을 비롯한 일군들과 금강산가극단, 도꾜조선가무단 성원들, 간또지방 문예동 역원들, 조선대학교 문예동 성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먼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이 랑독되였다.

한동성국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기념일에 즈음하여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신것은 특기할 력사적사변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문에 담겨진 의도를 잘 알고 총련의 문학예술활동에 구현해나갈데 대해 그는 언급하였다.

모임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리룡수단장은 금강산가극단이 걸어온 전로정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으로 이어진 영광의 로정이였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의 영예를 더욱 높이 떨쳐나가리라는 굳은 믿음을 안겨주신것은 최상의 행복이고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앞으로 금강산가극단의 역할을 더욱 높임으로써 동포들의 민족적자각과 긍지를 불러일으키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나팔수가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금강산가극단 단원 황유순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동포들을 귀중한 한식솔이라고 불러주시였다고 하면서 조국과 재일동포는 떨래야 떨수 없는 운명공동체라는것을 절감하게 되였다고 피력하였다.

재일동포예술인들을 민족의 예술인으로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조선대학교 교육학부 부학부장 박정순은 조국방문의 나날에 축하문을 받아안은 감격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역땅 일본에서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문화예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그는 앞으로 무용리론의 발전과 민족교육사업에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토로하였다.

김정수위원장은 문화와 예술로 총련의 새 전성기를 마련하는 사업에 동포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겠다고 언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작품창작과 공연, 전시, 출판활동 등 참신하고 다양한 활동을 벌려나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 가나가와동포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식 진행

조선인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가나가와동포합동위령제가 10월 20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꼬하마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리영훈 총련 가나가와현본부 위원장과 각 지부위원장들, 동포들, 유가족들이 참가하였다.

김영재 총련 쯔루미지부 부위원장이 추도사를 하였다.

그는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가나가와에서 간또대지진때뿐아니라 현내의 군사기지와 군수공장, 탄광과 공사장들에서 너무나도 많은 조선동포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였다고 말하였다.

가나가와현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일본정부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과거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력사외곡과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참가자들은 희생자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 식민지노복의 쓸개빠진 망동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외워대는 말이 있다. 미국과의 그 무슨 《돈독한 신뢰》와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다. 하지만 현실은 남조선미국관계야말로 가장 불평등하고 예속적인 관계, 상전과 주구의 종속관계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최근 미국이 지금까지 최소한 35개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해온 사실이 드러나 전세계가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이어 남조선의 피뢰대통령과 주요인사들도 미국의 도청대상으로 되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 그와 관련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피뢰들의 태도이다.

이미 도이췰란드와 프랑스를 비롯하여 미국의 도청을 당한 여러 나라들은 즉시 미국에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을 들이대며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그런데 남조선 피뢰들은 미국의 처사에 당당히 대처할 대신 상전의 눈치만 살피며 할 말도 변변히 못하고있다. 지금껏 세계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도청행위에 대해 강건너 불보듯 하면서 외면하던 피뢰들은 저들에 대한 도청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당황해하면서도 항의가 아닌 기껏해서 상전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시늉을 했다. 피뢰들의 《요청》따위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있는 미국은 그저 《리해한다.》고 적당히 둘러치고말았다. 미국의 이런 무례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피뢰패당은 지금 창피스럽게도 《료해하고있다.》는 외마디말만 외우고있다. 이로써 남조선피뢰들은 저들이야말로 미국에 의해 도청을 당하는 치욕을 겪고서도 항변 한마디 못하는 가련하기 그지없는 식민지노복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에 대한 남조선 각계의 비난과 규탄이 비발치자 피뢰패당이 미국의 도청은 《아직 의혹수준》이라느니, 《아무 근거도 없다.》느니 하고 변명하고있지만 그것은 조소만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이 남조선피뢰들의 통화를 도청하면서 그들의 움직임을 손금보듯 파악해왔다는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다. 전 《대통령》 로무현은 물론 손때묻은 주구인 리승만역도와 《유신》독재자도 도청대상이였다고 한다. 지난 7월에도 워싱톤주재 피뢰대사관에 대한 도청사실이 폭로되였다. 이런 무차별적인 도청행위는 미국이 저들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피뢰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며 하대하고 업수이여기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하지만 꼬물만 한 자존심도 없는 피뢰들은 별문제가 아닌듯이 미국의 불법도청사실을 수수방관해왔다. 저들의 대사관에 대한 상전의 도청행위가 드러났는데도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니 이 얼마나 쓸개빠진자들인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며칠전 피뢰외교부의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도청은 민감한 문제이지만 《동맹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느니, 《마땅한 대응방안도 없다.》느니 하는 머저리수작만 늘어놓았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난 피하기 어렵다.》, 《대사관도청의혹때와 마찬가지로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하였다. 민주당은 피뢰당국의 비굴한 처사를 《벙어리외교》, 《화낼줄 모르는 외교》라고 비난하였다.

이번에 피뢰패당에게 망신살이 뻗쳐도 단단히 뻗쳤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게 도청이라는 수모를 당하고도 아무런 대꾸도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끌려다녀야 하는것이 바로 피뢰들의 가련한 처지이다. 오직 미국의 요구를 만족시켜주고 그의 비위를 맞추어 상전이 던진 집권유지의 끈만 잡고있으면 된다는 굴종의식이 지배하고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그토록 멸시를 당하면서도 벙어리흉내만 내는것이다.

미국상전에게는 뺨을 얻어맞으면서도 아부굴종하고 한피줄을 나눈 동족에 대해서는 피를 물고 끝까지 맞서보려고 날뛰는 바로 이것이 추악한 매국노, 민족반역무리로서의 피뢰들의 추악한 몰골이다.

나라와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빌붙어 잔명을 부지하는 반역자들의 운명은 언제나 바람앞의 등불신세이다. 피뢰패당이 아무리 미국상전에게 아양을 떨며 민망스럽게 놀아대도 차례질것은 치욕과 망신밖에 없다.

심철영

#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유신》독재를 되살리기 위한 피뢰보수패당의 파쑈적광란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피뢰고용로동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정의로운 교육활동을 벌리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교원들을 두둔하고 조합에 계속 망라시키고있다는 구실을 내들고 합법적인 로조의 지위를 공식 박탈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에 따라 남조선의 시, 도교육청들에서는 전교조를 말살하기 위한 법적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을 비롯한 온 겨레는 전교조에 대한 피뢰보수패당의 파쑈적탄압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피뢰패당의 악랄한 전교조탄압책동을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로, 남조선에서 민주세력을 초토화하고 《유신》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극악한 파쑈적망동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규탄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의 전교조는 《민족, 민주, 인간화의 참교육구현》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옳바른 력사관과 통일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하면서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적대의식을 타파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의 단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전교조는 지난 20여년동안 남조선 각계와 국제로동운동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피뢰당국의 가혹한 박해와 탄압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싸워왔다.

하기에 선행피뢰정권들도 식민지파쑈통치를 반대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의 선봉에서 투쟁하는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탄압말살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지만 내외여론이 두려워 감히 그의 합법적권리는 박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전부터 전교조를 《해충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전교조에 아이들을 맡길수 없다.》고 고아대온 현 피뢰집권자는 《정권》의 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단체를 말살해버리기 위한 파쑈의 칼날을 빼들었다.

더우기 전교조가 청소년학생들에게 친미, 친일세력들의 불법적인 집권에 의하여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현실과 전대미문의 《유신》파쑈독재가 빚어낸 비참한 후과를 바로 인식하도록 가르치고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한 새 세대들이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서고있는것으로 하여 극도의 궁지에 몰린 피뢰패당은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나 전교조를 기어이 없애버리려고 《종북의 심장》이니, 《내부의 적》이니 뭐니 하면서 파쑈폭압기구들을 총동원하여 탄압하고있다.

그러나 피뢰패당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정의와 진리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참다운 교육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

교육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이다.

정의와 진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탄압박해하고 신성한 교육을 감히 파쑈독재통치로 짓밟는 보수패당의 횡포와 무지막지한 반민족적, 반민주적폭거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것이며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11월 2일
평양

## 로씨야정당들
# 남조선괴뢰패당의 진보정당해산책동을 규탄

로씨야정당들이 남조선괴뢰패당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집행위원회는 10월 28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커다란 불안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화 및 통일당 집행위원회는 국제법에 배치될뿐아니라 위험한 전례를 조성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한다.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금지시키려는 시도는 진보세력들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긴장격화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려는 현 남조선당국의 속심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책동은 정치적근거가 희박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여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행위를 저지시킬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계에 호소한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강렬한 지향을 절대로 가로막을수 없으며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은 10월 27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린 론평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련맹볼쉐비크공산당은 조선인민의 평화적통일과정을 어떻게 하나 파탄시켜보려는 남조선당국의 도발행위와 관련한 조선의 벗들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파괴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반통일분자들이 아무리 광기를 부려도 조선민족의 력사적인 통일과정을 절대로 막지 못할것이다.

현 집권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

## 조류독감 발생

10월 31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지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들의 철새와 닭들의 분비물을 검사한 결과 조류독감비루스가 발견되였다.

남조선에서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조류독감이 발생하였는데 그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6 0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 대중적인 시위와 파업

미국의 워싱톤시에서 10월 26일 인터네트를 통한 당국의 정탐행위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벌어졌다.

이전 미중앙정보국 요원 스노우덴에 의해 당국의 정탐행위가 련이어 폭로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2 000여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정탐행위를 중지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규탄배격하였다.

한편 에스빠냐의 마드리드에서 10월 24일 부당한 교육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파업이 벌어졌다.

파업에는 교원들을 비롯한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당국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많은 교원들이 실업자로 전락되게 된데 대해 항의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 경제형편에 비관

미국인들속에서 경제형편에 대한 비관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10월 25일 이 나라의 한 경제단체는 경제형편에 대한 주민들의 견해를 나타내는 소비자신용지수가 한달전에 비해 4.3점 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서 청년들의 처지가 날로 악화되여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약 600만명의 24살미만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있다 한다.

## 자연피해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0월 28일현재 태풍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62만 5 000세대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고 렬차와 비행기운행이 중지되였다.

또한 네데를란드에서 10월 28일 시속 150km의 태풍이 들이닥쳐 많은 살림집들이 파손되고 교통이 혼란상태에 빠졌으며 농업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였다. 태풍에 의한 손실액은 9 500만€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북부쑤마뜨라주에서 10월 24일 씨나붕화산이 분출하였다. 화산분출로 3 000m높이까지 솟구쳐오른 검은 재가 화산으로부터 반경 2.6km주변의 마을과 농장들에 두텁게 내려덮였으며 3 300여명의 주민들이 긴급소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 무너져가는 미국의 패권구도

력사를 훑어보면 지배주의세력, 패권국가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와 패권은 언제나 일시적이였으며 오래가지 못하였다. 미국의 패권도 역시 같다.

미국의 지정학전문가이며 패권주의설교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가 자국의 패권이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30여년전에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으로 있은 브레진스키는 랭전종식후 미국의 일극세계지배론의 주요제창자이고 3대 가장자리론의 고안자이다. 그는 1990년대에 21세기가 미국의 세기로 된다고 떠들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자면 세계의 중심부인 유라시아대륙을 지배해야 하며 유라시아대륙을 지배하자면 그의 가장자리들을 먼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동서유럽의 교차점에 있는 도이췰란드,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지역,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이 3대 가장자리로 된다고 밝혔다. 브레진스키는 패권국가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군사적힘을 키우는것이며 그와 함께 그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패권주의론리를 갖추는것이라고 미행정부들에 제언을 주군 하였다. 그러던 그가 인생말년에 와서야 자기가 한생을 바쳐 실현해보려고 한 미국의 패권주의정책에 의혹을 표시하였고 그 정책이 실현불가능하다는것을 인정하였다.

브레진스키는 워싱톤의 존즈홉킨스종합대학에서 있은 도서소개식에서 랭전종식후 10여년간 지속되여온 미국의 패권은 과거의 일로 되였으며 가까운 앞날에는 회복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로씨야대외국방정책리사회 부위원장 드미뜨리 쑤슬로브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도 미국의 패권구도가 붕괴되였다고 주장하였다. 현 미집권자도 세계가 다극화되였다고 인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력사발전의 방향이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 흐름이 자기 궤도를 정확히 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침략전쟁과 군사적압력, 내정간섭, 경제제재 등은 미국의 패권구도를 종말에로 이끌어간 근본요인이다.

1990년대 초엽에 쏘미대결구도가 종식된 후 힘만능주의에 현혹된 미국은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무장장비현대화와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렸다. 세계 주요군사대국들의 군사비를 다 합친것보다 더 많은 미국의 군사비는 해마다 늘어났으며 중동과 동아시아 등의 여러 지역들에 공중 및 해상기동타격무력이 증강배비되였다.

미행정부들은 잠재적적수들을 규정하고 그 《위협》설을 제창하면서 핵선제공격론을 정당화하였다. 적수들에 대한 군사적포위환을 형성하기 위해 나토확대를 다그치는 한편 새로운 군사동맹들을 내오기 위해 획책하여왔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을 담보하기 위한 악랄한 시도였다.

그러나 미국의 집요한 패권주의야망실현책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많은 나라들이 반기를 들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도전하여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우려를 품고있는 나라들사이의 협력이 강화되였다. 이 과정에 상해협조기구가 출현하였으며 중국과 로씨야사이의 합동군사연습들이 자주 진행되였다. 이로 하여 군사력관계에서 미국의 지위가 올라간것이 아니라 반대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로씨야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클린톤이 집권했던 1990년대에 미국은 패권을 더 강화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패권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다른 세력중심들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였고 적수들을 많이 만들어놓았으며 자기의 지위를 잃었다. 부쉬2세의 집권말기에 미국의 패권은 종말을 고하였다.》

다른 한 전문가는 미국의 패권은 항상 반발에 부딪쳤으며 많은 나라들과 국가그루빠들이 미국에 도전하였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랭전종식후 여러차례의 전쟁들을 감행하였다. 특히 현 세기에 있은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은 모두 미국이 세계에 대한 패권을 실현하기 위해 벌린 전쟁들이다. 한 외신은 《이라크전쟁으로 미국의 전횡이 되살아났다. 이라크전쟁은 세계무대에서 다시 시작된 미국의 전횡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보도하였다.

미국은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구실을 내걸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동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라크를 침략하였다. 그후 미국이 내걸었던 《대량살륙무기제거》라는 구실이 완전히 날조설이였다는것이 낱낱이 드러났다. 타당한 명분도 없는 구실을 날조해내여 주권국가에 대하여 제멋대로 무력행사를 하는것은 국가테로외의 다른것이 아니다.

미지배층의 머리속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타격할수 있으며 저들은 그 어떤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극도로 오만한 《특권의식》이 깊숙이 배겨있다. 그들은 세계에서 미국만이 옳고그른것을 판단할수 있는 《정치적기준》을 가지고있으며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는 침략과 간섭행위도 《정의》를 위한것으로 정당화하여왔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나라들에서 무인기공습, 《테로분자체포작전》과 같은 군사작전들을 공공연히 벌려왔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강권과 전횡은 세계도처에서 반미기운을 높이는 요인으로 되였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조치들이 취해졌다.

지금 미국의 힘은 점점 진해가고있다. 막대한 빚더미우에 올라앉은 미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군사비를 삭감하고있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미국내에서는 국가예산작성문제를 놓고 당파싸움이 치렬해지고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렴탐행위로 하여 국제적으로 몰리우고있다. 도이췰란드, 프랑스, 에스빠냐를 비롯한 동맹국들도 자기 나라 정부수반들의 손전화기까지 불법도청한 미국의 죄행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고들면서 비난하고있다. 현 미행정부는 그 죄행을 부정하고 변명하느라 진땀을 뽑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일이다.

미국은 세계시장경제를 독단으로 관리할수 있는 힘도 잃었다.

《경제의 일체화》는 랭전종식후 미국이 추진한 대외경제정책이였다. 세계 많은 지역들에 자본주의시장체계가 도입되였다. 그를 통해 미국은 시장을 확대하였고 일정한 기간 그 덕을 보았다. 미국은 자국경제가 세계경제를 이끄는 견인기라고 자랑해왔다.

그후 세계곳곳에서 금융위기들이 폭발하였다. 영국, 타이, 인도네시아, 메히꼬 등 여러 나라들에서 금융위기들이 발생하였다. 금융위기들은 그 나라가 위치한 지역을 휩쓸었을뿐아니라 세계경제발전에도 해독적영향을 미쳤다.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불량주택대부금위기는 그 다음해에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졌다.

이것은 미국딸라지배의 국제금융통화제도의 위험성과 취약성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역화폐를 내왔다. 남남협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20개국수뇌자회의와 브릭스의 출현 등은 미국이 세계경제관리에서 독판치기를 하던 시대가 끝장났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여러 나라 전문가들은 중국과 인디아,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세력중심들이 형성되고있으며 그 과정에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재분할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미국은 끝장난 패권구도를 어떻게 하나 되살려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실현해보려고 이 지역에 무력을 증강하고있다. 환태평양경제련대협정을 내놓고 이 지역을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미국이 바라는 패권구도는 절대로 수립되지 못할것이다.

세계 대다수 나라들은 지배와 예속이 아니라 자주를, 주권침해가 아니라 주권존중을 요구하고있다. 력사는 바로 그 요구에 따라 전진하게 될것이다.

리경수

ㄱ-311722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